

특별기획

김제시 겨울 설해대책 추진나서

고가도로 등 교통소통 취약지역 9개소와 상습 결빙구간 등 70개소 예찰활동 강화



부안주산면,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부안군 주산면 어르신 경로위안잔치가 지난 4일 주산면체림공원에서 김종규 부안군수와 김종희 국회의원, 지역주민 등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임중순 전 동신SNT 회장이 나고 자란 고향 주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마련한 자리로 개회를 시작으로 부안군 나누미농장 학습기, 오찬, 공연 순서대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80세인 임중순 전 회장은 팔순잔치를 뒤로한 채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이번 경로위안잔치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최

김제시가 지역 평생교육진흥과 학습기 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시민운동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 '제7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이 풍성하고 알찬 학습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배움, 나눔 학습으로 더 행복한 김제!" 라는 주제로 12개 평생교육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체험학습과 무대공연 발표회, 성인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학습 과정으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뜨거운 학습열기와 호응을 받았다.

홍보체험관인 배움마당에서는 100여명의 부스에서 다양한 학습체험과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체험관을 비롯하여 평생학습관·여성회관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이 펼쳐져 유아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관람객의 체험행렬이 끊이지 이어졌다.

특히 발표마당에서는 학습동아리,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수강생 발표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등의 공연발표가 이어져 그동안 배웠던 학습을 뽐내고 발표하는 무대가 되었으며 가족단위 학습자를 위한 4D무비카, 추억의 교실, 행복학습 페스티벌, 성인문해 학습자가 참여한 '거리시화전' 등 다채로운 학습행사로 짝 채워져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아름다운 학습추억을 만들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단풍미인소핑을 판파티 성료

정읍사에서 직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단풍미인소핑몰에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7000 추억여행을 주제로 판파티를 성황리에 끝냈다.

정읍농경문화체험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라북도는 물론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참여했고 파워블로거와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참여자 모여 한데 어울린 이 자리에서는 각자 학창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되새기고 정읍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를 함께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복을 입고 내장산 관광하기, 풍기타 공연과 시 낭송 추억의 고교터전, 손편지 쓰기 등 7080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단풍미인소핑몰 입점농가에서 준비한 푸짐한 경품행사와 함께 즉석 경매, 농가 체험 행사도 이루어져 소비자와 생산자가 한데 어우러진 소통의 장이 됐다.

단풍미인소핑몰은 2014년부터 매년 판파티를 가져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정읍 농특산물의 품질의 우수성과 단풍미인소핑몰 입점 농가의 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시장 이진석)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60개 노선 456km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설해대책 상황실 운영, 취약지구에 모니터링 지정, 제설 구간 연장 제설 물품 확보 및 제설장비 보강 등을 담은 '2016년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제시는 설해대책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 근무를 실시하며 신 적설 20cm 이상일 경우 전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 피해

상황 파악, 응급복구 등을 실시하며 고가도로, 지하차도, 고갯길 등 교통소통 취약지역 9개소와 상습 결빙구간 등 70개소에 대해서는 모래주머니 2만개를 비치하고 현장책임자이외에 19명의 모니터링원을 지정 배치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현 보유중인 덤프 4대 등 제설 장비이외에 15톤 덤프트럭 2대 및 제설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체계적인 제설을 위해 GPS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금구면 등 2개소에 염수 보관기지를 추가 설치하며, 친환경 제설제 200리, 염화칼슘 578톤, 소금 1,971톤, 모래주머니 2만개 등 90일 분의 제설용품들을 조기 확보했다. 특히 토양오염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염화

칼슘을 친환경 제설제로 잠정적으로 대체기로 하고 올해에는 전년 대비 4배 늘린 200리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업체에서 필요 장비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장비·인력등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19개 읍면동에 장비 입차비를 지원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진석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히고 "시의 제설 작업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집 앞 내가 즐기'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2016 정읍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가 지난 5일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정읍시민 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12만 시민 발전의지 다져

2016 정읍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5일 정읍종합경기장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시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통해 12만 시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 의지를 다지기 위해 격려로 이 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식전공연으로 정읍시립국악단의 공연과 태권도 시범이 펼쳐졌고, 읍면동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된

자랑스런 체육인 23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축구와 배구, 게이트볼 등 8개 종목에 참여한 23개 읍면동 선수들이 평소 갖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쳤다.

대회 결과 축구는 내장산동, 배구는 고부면, 게이트볼은 산외면, 이벤트 릴레이는 소성면, 고리걸기는 시기도, 부호는 상곡동, 단체출발기는 농소동, 출타리기는 신대인읍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상곡동이 응원상 내장산동이 화합상, 모범상은 영원면, 질서상은 연지동, 인기상은 농소동, 소풍상은 북면이 각각 수상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행사 진행 내내 시민체전을 관람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종합경기장을 지켰다.

김 시장은 "이번 시민체육대회가 정읍 발전을 위한 격려와 다짐의 자리 가 되고 모든 시민이 기대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정읍의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촌 저소득 장애인에 편의시설 지원

5세대 사업 대상자 선정 마쳐

정읍시가 농촌지역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9월 신청을 받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5세대의 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

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4인 기준 539만원) 세대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높은 가구, 장애인 다수 가구,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가구, 고령장애인 가구, 저소득장애인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세대에는 세대 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조 손잡이 설치와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주택 내의 편의 시설 지원이 원칙이나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

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 내부 신규 설치 등도 지원한다.

다만,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임대료)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교월동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완료

김제시 교월동주민센터(동장 김태현)가 청사이전작업을 완료하고 7일부터 새로운 청사(벽지산로 215)에서 업무를 시작하였다.

신축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약 2년여가 지나 노후한 현 청사를 대신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착공 후 약 1년여만인 지난 10월말 제대로 완공

되었다.

이후 민원인들의 불편과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업무 외 시간을 이용 지난 6일까지 단계적으로 이전작업을 마무리하고 7일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신청사는 교월동의 중심도로변에 위치하여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고, 넓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이 갖춰져 방문민원인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현 교월동장은 "신청사 이전으로 보다 나은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더욱 교월동 주민 모두가 행복한 교월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 예술인들의 기량을 군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제15회 부안예술제 성황리에 마쳤다.

부안예술인들 함께 소통하다

부안예술제 3일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안 예술인들의 기량을 군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제15회 부안예술제 성황리에 마쳤다.

"행복한 부안~ 예술로 가꾸자"를 슬로건으로 한 제15회 부안예술제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공연, 전시, 체험, 발간 등)으로 대도시 예술제를 능가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진행되었다.

첫날 4일 개막식에서는 부안예술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되어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국악협회 차재환, 문인협회 김명자, 미술협회 윤성식, 연예 예술인협회 박태희씨가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이어서 펼쳐진 제2회 부안 트로트

가요제에서는 본선 진출자들의 열띤 경쟁 속에서 '뿔뿔네'를 열창한 양승기씨(부안읍)가 대상의 영광을, 금상 하민진(진서면), 은상 최순영(하서면), 동상 정은영(부안읍), 장려상 박미화(부안읍), 인기상 정영돈(백산면)씨가 수상했다.

둘째 날 5일에는 전통국악의 흥과 멋을 마음껏 발휘한 '부안국악제'와 부안하모닉스 색소폰앙상블의 정겨운주제가 곁여가는 가을밤을 수놓았으며, 6일에는 제2회 부안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가 KXS전주 어린이합창단, 전주여성합창단과 전주남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안예술제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의회, 월드비전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결식이동과 독거노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체험하였다. 이는 지난 9월 유진섭 의장이 월드비전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나서 정읍시의원 전체가 봉사활동에 참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에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등 5명이 참여해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을 가졌다. 월드비전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은 오전 8시부터 도시락 밀반찬 만들기과 밥 짓기를 시작하여 11시 30분까지 400여개의 도시락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달하는 전 과정을 체험하는 활동이며

읍면동에 배달된 점심도시락은 곧바로 결식이동과 독거노인들이 전달된다. 결식이동 및 독거노인들의 도시락을 제작하는 일과 배달에 참여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일동은 "도시락을 만드는 처음과정부터 만들어진 도시락을 읍면동에 배달하는 전 과정을 실제로 체험해 보고 나서 하나의 도시락이 만들어져 결식이동과 독거노인에게 전달되기까지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수고 하시는 수많은 숨은 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읍시의회에서는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다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정읍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IC 일원(하모동)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와 교통회관이 들어서 오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읍시 하모동에 공영차고지 들어서

국·시비 53억원 투입 차고지 178면 조성, 교통회관 498㎡ 신축

정읍 IC 일원(하모동)에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와 교통회관이 들어서 오는 15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착공, 완공된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는 총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됐다. 하모동 68·7번지 일원 2만9천421㎡에 조성됐으며 주차면 수 178면(화물 자동차 118, 승용차 60)이다. 또한 부지 내에 498㎡ 규모의 교통회관도 들어섰다. 교통회관은 회의실과 다목적사무실, 휴게실, 수면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그간 '그간 화물 자동차 차주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택가

이런 도로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그간의 시민 불편을 해소한 것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는 주택가 화물 차량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효과는 물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